

## <별첨>

# 외신 동향

## □ The great hole of China (Economist 14.10.18)

### ○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로 중국의 부채문제가 대두

- 중국의 부채규모가 지난 수년 간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과거 미국·일본의 레버리지로 인한 버블 붕괴의 이전 모습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고조
- 부채비율 급증현상은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실행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의 후유증으로 증가속도가 동기간에 여타국가들 중 가장 높았음

\* 총부채규모(GDP대비): '08년 150% → '14년 잠정 250% 수준까지 도달

- 특히 최근에는 성장둔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기업 디폴트 리스크 증가 등으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

\* 명목 성장률은 2000년대 평균 15%수준에서 8.5%까지 하락, 최근의 낮은 물가 상승률(9월 1.6%)을 감안할 때 향후 더욱 낮아질 가능성

### 중국의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 (A moral deficit)

#### Different gears

Chinese\* debt-to-common equity ratios by industry,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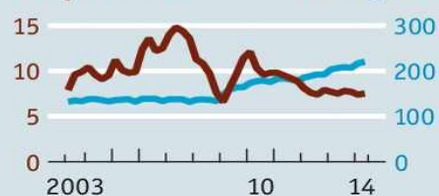
- Construction
- Property management & development
- Metals† & fuels
- Industrial conglomerates
- Transport infrastructure



Source: Bloomberg  
\*Includes mainland & Hong Kong listings  
†Excluding China Minmetals

#### China's

GDP, % increase on a year earlier  
Debt as % of GDP



- GDP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과잉투자의 양상
- 총 부채의 절반이상이 기업부채이고 특히 국영기업과 부동산개발 산업 등에서 두드러지게 확대

○ 이러한 부채 문제가 갑작스런 금융 시스템 붕괴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

- 중국정부가 자국 금융시스템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암묵적인 보증을 지원

-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해외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를 방지

\*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약 4조 달러로 세계 1위(2014년 6월말 기준)

○ 그러나, 오히려 이러한 완충장치(buffer)가 구조개혁을 지연

- 중국정부는 대규모의 회사채 디폴트와 소규모 기업 파산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정책으로 구체화 하지는 못함

\* '14년 10월 초 중국국무원은 이달 초 지방 정부가 부채 위험에 대한 예고 시스템을 갖추고 기채 권한과 상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구제에 나서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을 밝힘

○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성장둔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 경우 성장둔화 → 투자 급락 → 성장을 하락폭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

- 중국은 개혁과 성장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 중

- 경제지표 악화로 위축된 시장이 정부에 부양책을 호소하지만, 시진핑 지도부는 국정 아젠다인 개혁을 중시하며 경기 부양책이 없음을 강조하고 저 성장 수용 의지를 재차 확고히 함